

폐기물 재활용은 우리 모두의 과제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비가시적 문제점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무관심한 경향을 지니게 된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보편화된 심리구조는 그것이 가시화되었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한 템포 늦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며 어찌면 이러한 개인들의 구조적 심리는 한 국가나 인류 모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를 종종 드러내어 우리 모두를 반성하게 하고 있다.

“준비가 있으면 화가 없다”는 유비무환의 교훈은 많은 예를 들수 있겠지만 그중 우리에게 제기되는 환경오염의 문제는 이제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하여 해결하려는 안타까움이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마치 임기응변적이고 미봉책이었던 문제해결의 자세에도 큰 원인이 있겠지만 바둑판에서 한수앞을 보는 자와 못보는 자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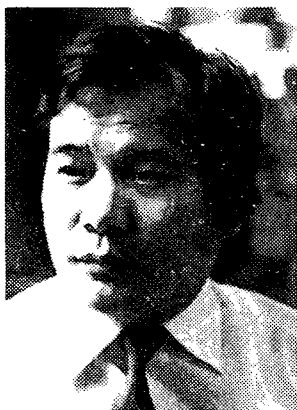
일례를 들어 비가오면 항시 무너지는 독이 또 무너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오늘을 편히 쉬기위해 내일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반성과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환경문제!” 이는 어떻게 느끼면 아주 소홀히 하기쉬운 요소들 때문에 간과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그동안 우리는 지속적인 발전과 개발의 측면에만 눈을 들린것이 사실이었으며 그것은 어찌보면 절대절명의 과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발전과정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왔으며



조익창 / 한국자원재생공사
홍보실장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환경오염에 대한 것이며 이에 수반한 쓰레기의 처리문제와 각종 폐기물에 대한 대책과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버리는 각종 쓰레기(폐기물)들이 만약 분리되어 버려질 때 수거작업을 통하여 재활용 되어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듯 하다. 안타까운 사실이다.

유럽의 경우 버려지는 폐기물은 분리 수거되어 99% 가까이 재활용되어 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교훈적이라 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그들은 요일마다 내버리는 쓰레기종류를 정하여 그날은 한 종류만 수거하는 방식을 택한다든가, 거리에도 쓰레기통마다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어 국민의 협조하에 분리수거를 자연적으로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국민 모두가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고갈되어가는 자원에 대해 문제의식을 함께 할때 자연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산업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폐기물들이 그저 단순하게 소각처리되거나 난지도에 쌓여 매립 또는 버려지지만 한다면 우리는 그 대량의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폐자원이 재활용되어 바람직한 순환

의 과정(폐기물 2 재활용의 Recycling)이 이루어질때 우리는 우선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변화에서 오는 위협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고갈되어가는 자원의 문제해결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간과하기 쉬운 일들, 그러나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폭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매일 신문을 보면 환경오염에 대한 글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강과 각 하천들의 오염, 공장에서 쏟아지는 각종 폐수와 폐기물, 맹독성의 중금속 중독사건, 공해병…… 이러한 것들의 문제는 더 심각한 속제로 남기 이전에 국민들의 자각과 업주들의 반성, 이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전국에 8개 지사와 60개의 관리소에서 읍·면을 정기적으로 순회 하면서 농어촌에서는 폐비닐과 농약빈병, 도시지역에서는 폐휴지와 고철등을 유상으로 매입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을 자원화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